

2006년 일본 섬유 시장의 핀 포인트 히트 예감 상품들

소비가 다양화하고 세분화되고 있다는 말은 오래 전부터 많이 들어 왔다. 이에 따라 공급측, 즉 생산자 측에서도 다양화·세분화의 최대 공약수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요구에 섬세하게 맞추려는 제안이 눈에 띄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치열한 기술 혁신이나 시장 환경의 변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판매 전략에도 수없이 다듬고 또 다듬은 아이디어가 많이 담겨 있다. 여기서 먼 방적 기업이 제일 먼저 추천하는 상품 중에서도 섬유 시장에서 히트가 예감되는 두 가지 상품을 소개한다.

◎ 후지보의 “서멀라이브(Thermalive)” - 의복 내 온도를 쾌적하게 조정

후지보의 “서멀라이브”는 입고 있는 의복 내 온도를 쾌적하게 컨트롤해 주는 온도 조절 소재이다. 사람이 가장 쾌적하게 느낀다는 31℃ 전후에서 흡열하거나 방열하여 의복 내에서의 급격한 온도 변화를 억제해 준다. 후지보가 내놓고 있는 상품 개발 테마 ‘헬스 & 사람에게 착한 어메니티(amenity)’에 따라 만들어진 상품으로 냉방이나 난방이 되어 있는 방에서 밖으로 나갔을 때에도 변함없이 쾌적하게 한다는 관점에서 개발되었다.

“서멀라이브”는 상변화 물질(PCM)이 들어 있는 축열·축냉 마이크로캡슐을 후가공으로 지니게 해 준 올 시즌(all season) 대응 소재이다. 시원한 곳에서 따스한 곳으로 옮기면 PCM이 용해하면서 열을 흡수하게 되어 원단의 온도를 낮춘다. 반대로 따스한 곳에서 시원한 곳으로 옮겼을 때에는 PCM이 굳어지면서 방열하여 원단의 급격한 온도 변화를 억제한다. 주변의 온도가 변하고 나서 그 자리의 온도에 익숙해 질 때까지 잠시 동안 효과가 지속된다.

PCM은 잠열량이 큰 파라핀계를 사용하고 있다. 효과를 잘 드러내는 온도는 파라핀의 융점을 바꿈으로써 조절이 가능하다. 후가공하게 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소재에 처리할 수가 있다. 이너, 컷소(cut-sew), 폴로 셔츠, 드레스 셔츠, 팬츠 등의 아이템에 이 가공을 제안하고 있다.

이 가공의 피부에의 안전성은 자사 시험뿐만 아니라 일본산업피부위생협회에서도 확인하고 있다.

◎ 시키보의 “카운터 페인 P” - 이중 효과로 꽃가루 대책

시키보의 “카운터 페인 P”는 ① 섬유에 묻은 꽃가루를 털면 잘 떨어지게 한다 ② 떨어지고 남은 꽃가루에서 나오는 알레르겐(allergen ; 꽃가루 등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빨아들여 피부에 침투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이중의 효과를 나타내는 꽃가루증(症) 대책 소재이다. 나노 기술로 섬유에 평평하고 매끄러운 꽃가루 부착 방지 피막을 만들었기 때문에 세탁 내구성도 좋다.

꽃가루증으로 고통 받는 사람은 일본에서 늘어나는 경향에 있다. 일본 사람들에게 제일 많은 것이 삼나무 꽃가루 알레르기이다. 이 꽃가루가 많이 날아다니는 시기에는 3시간 외출하면 1cm²에 25개, 전체로는 약 7만 5천 개의 꽃가루가 옷에 묻는다고 한다. 꽃가루증 대책에는 옷에 묻은 꽃가루를 털면 잘 떨어지게 하고, 다음에는 남아 있는 꽃가루가 인체에 주는 영향을 줄여줘야 한다.

“카운터 페인 P”는 꽃가루 부착 방지 효과가 매우 좋다. 삼나무 꽃가루를 묻힌 후, 약하게 털 다음에 꽃가루의 탈락도를 측정하는 시험에서 가공 안한 것은 33%인데, “카운터 페인 P”를 가공한 것은 98%까지 섬유에서 떨어졌다.

세탁을 10번 한 다음에도 87% 탈락하였다.

또한 옷에 묻은 꽃가루가 습기를 받으면 갈라져, 땀에 녹아난 꽃가루 알레르겐이 피부에 침투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 “카운터 페인 P”는 조금 남은 꽃가루에 대하여도 천연 미네랄 성분이 꽃가루 알레르겐을 불활성화시켜 버리는 기능이 있다. 천연 미네랄 성분은 400배의 꽃가루량을 흡착시킬 수 있어 처리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